

# 지역활성화와 자원활용으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구마모토현 방문기

송두범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박준섭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홍은일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 I. 시작하는 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정책제안·교육·연구조사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2014년 센터는 '사회적경제는 지역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연구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국제교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방향을 단발적인 교류가 아닌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공유 하고, 사회적경제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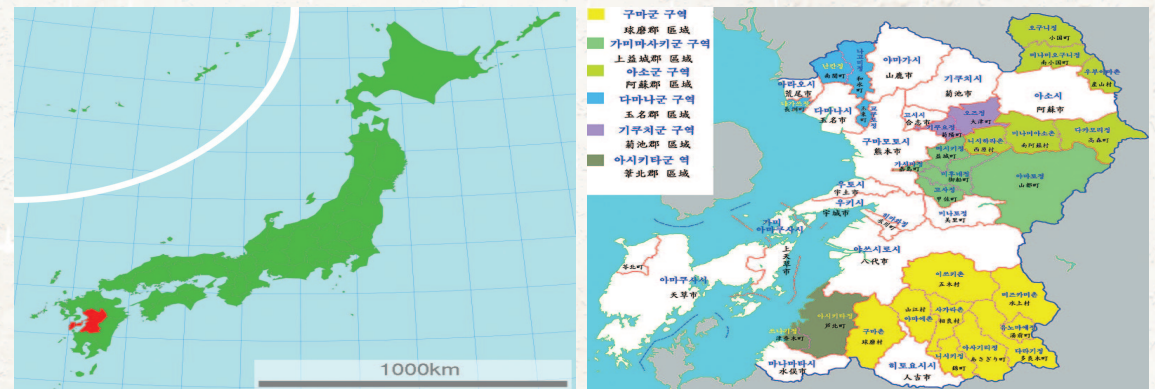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県)의 경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마모토현의 경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동시에 충남도의 자매도시로 지속적인 교류의 플랫폼의 구축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구마모토현과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교류일정은 2014년 11월 4일~7일, 3박 4일간으로, 구마모토현(상공정책과, 지역진흥과, 남녀참가협 동추진과) 및 구마모토 소셜비즈니스 네트워크, CHIKAKEN, 아소그린스톡, 큐슈바이오매스포럼을 방문 하였다. 이번호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마모토현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인상깊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CHIKAKEN과 큐슈바이오매스포럼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II. 구마모토현에 대하여

구마모토현(熊本県)은 일본 큐슈 중앙부에 있는 현으로, 현청 소재지는 구마모토시(熊本市)이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631킬로미터)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7,405km<sup>2</sup>(충청남도는 8,204km<sup>2</sup>), 현의 60%가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북부는 비교적 높지 않은 산지이지만, 동에서부터 남쪽으로 표고 1,000미터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계곡들이 형성되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칼데라를 자랑하는 아소산(阿蘇山)의 경관은 뛰어나다. 현의 서쪽으로 아리아케해(有明海), 야쓰시로해(八代海), 동중국해를 접한다.

기후는 대체로 온난하지만, 내륙성 기후로 여름과 겨울이 뚜렷하다. 평균기온은 16~17도 정도, 여름은 35도가 넘는 때도 있다. 겨울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 인구는 2005년 현재 185만명이다.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3.7%로 일본 전국 평균 20.1%보다 높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1] 구마모토현의 위치와 시세

출처: <http://ja.wikipedia.org/wiki/熊本県>



구마모토현의 경제구조(2009년)는 1차 산업의 비율이 2.7%로 일본전국평균의 1.1%의 2.5배 수준. 반면 2차 산업은 19.2%(평균 22.8%)로 낮은 수준이다. 3차 산업은 78.1%(평균 76.1%)로 높다. 현내 총생산액은 5조6049억엔, 현 소득은 3조9587억엔, 1인당 현민 소득은 2,183천엔으로 전국평균의 2,791천엔의 80%수준이다.

특히 농수산업은 일본전국의 탑 클래스를 자랑하는데, 수박, 토마토, 메론, 감귤, 쌀 등은 주요한 농산물이며, 수산물 역시 참돔, 복, 새우 등의 출하량이 높고, 축산업과 임업도 중요한 부분이다. 제조업의 비중은 일본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반도체 등의 하이테크산업과 운송용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여, 반도체 및 운송용 기계 관련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최근에는 태양전지관련 산업진흥에 힘쓰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구마모토현은 일본 공해의 원점이라고 불리는, 수은중독으로 인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水俣病)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미나마타병이란 칫소(チッソ 窒素)주식회사라는 비료회사가 메틸수은화학물이 섞인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발생한 수은중독이다. 이것은 미나마타지역 그리고 구마모토현에 오랜 상처를 남겼다. 최근까지 계속되어온 공해병인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뿐만 아니라 미나마타=공해지역이라는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 III. 사회적경제조직 방문

#### 1. 치카켄(CHIKAKEN)

CHIKAKEN은 대나무를 이용한 조명제품 제작·판매하고 이를 활용한 축제기획을 하는 회사이다. CHIKAKEN의 시작은 부분별한 대나무조립으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지역사회가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회사대표인 미시로(三城)와 이케다(池田)는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나무를 이용한 조명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CHIKAKEN의 진정한 시작은 소조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우치마루(内丸)연구실(대표들의 출신 대학원)의 경험에서부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치마루교수는 19년 전 시작된 우스키다케요이(うすき竹宵)라는 오이타현 우스키시(大分県臼杵市)의 대나무등불축제의 기획자이며, 지금도 이 축제를 기획 추진하고 있다. 이 축제를 기획했던 경험들이 현재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든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잠시 축제에 대해 소개해보자. 우스키시는 오이타현의 작은 소도시로, 일본의 지방도시가 겪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도시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중심상권에는 셔터가 내려진 가게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스키시는 우치마루교수에 의뢰하였고, 우치마루교수 그룹은 대나무등롱(竹ぼんぼり) 오브제를 활용한 축제를 기획한다.

19년 전 초창기에는 1500개정도의 대나무를 활용한 오브제 1개로 시작한 작은 규모였으나, 현재는

2만개 이상의 대나무가 사용되고 오브제 역시 30개 이상으로 도시 전체가 들쭉이는 규모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연구에 따르면, 제4회 축제 개최 시점에서 4억엔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음)는 물론, 상점가 재생(16년간 150개정도의 새로운 가게가 생겨났음), 역사적으로 분단되어왔던 지역커뮤니티 재생, 고령자와 청년세대간 교류 활성화, 신규 관광객 증가 등 결과들을 얻었다. 이러한 성공은 규수의 다른 지역도 자극하였고, 다양한 등불축제들이 탄생한 계기가 되었다(상세한 소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한다).



[사진 1] 우스키타케요이축제의 오브제

출처: [www.visit-uita.jp](http://www.visit-uita.jp)



[사진 2]우치마루교수의 발표 장면(현청)

CHIKAKEN은 현재 6명의 직원(대표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들은 구마모토현 출신이다. 직원 중에서는 대도시의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직장을 얻은 케이스도 있다. 일은 고되다. 봉급 수준은 자신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CHIKAKEN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보람'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역의 환경피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규모이지만 앞으로 CHIKAKEN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 3] CHIKAKEN의 사업을 설명하는, 열정 가득한 나카무라(中村)공장장



[사진 4] CHIKAKEN 공장



[사진 5] CHIKAKEN제품

CHIKAKEN의 활동은 환경문제를 제품으로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협력하고 있다. 그 시발점은 역시 대나무 조명이다. 축제 등에 사용된 대나무조명은 화학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만 안 되어 썩기 시작한다. 그래서 축제 등에 사용된 대나무조명은 곧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쓰여진 대나무조명은 버려지지 않고 대나무 숲 및 대나무 비료로 재활용된다. 대나무 숲의 경우, 디자인된 숲으로 인기가 높고, 대나무 비료 역시 친환경비료로 인기가 높다. 이 사업은 CHIKAKEN이 직접 하지 않고 마을기업들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는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령자와 청년간의 세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2] 대나무의 활용

출처: CHIKAKEN 홈페이지(<http://chikaken.com>)

## 2. 큐슈바이오매스포럼(九州バイオマスフォーラム)

큐슈바이오매스포럼(이하 포럼)은 큐슈의 바이오매스 이용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NPO법인)으로, ①사업성 연구조사, ②바이오매스 이용을 위한 홍보·보급, ③네트워크 구축, ④바이오매스에 관한 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포럼의 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아소시는 아직 화산활동중인 아소산 그리고 아소산으로 만들어진 칼데라지형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이 칼데라에는 드넓은 초원이 형성되어 있어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목축업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원의 풀 보존과 이용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임업이 발달해 왔고, 인공림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해외의 값싼 원목수입과 목재수요의 감소로 인해 임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임업의 쇠퇴는 비단 임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적절한 산림관리가 되지 않으면 산사태 및 홍수로 이어져 재해의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큐슈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범람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자연자원은 활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직결된다는 것이 포럼의 나카보 마코토(中坊 博) 사무국장의 생각이다.



[사진 6] 전형적인 칼데라지형을 보여주는 아소시 전경

나카보씨는 포럼의 실질적인 설립자이다. 그는 원래 화산을 연구한 연구자였다. 화산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해가 닥쳤을 때 거대한 발전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상시적으로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에너지원이 되지 않으면 재해시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소산의 거대한 초원과 산림에 착목하고, 포럼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현재 포럼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요한 관심은 '장작판매'에 있다. 포럼은 장작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FAO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장작사용은 거의 없는데(0.9m³/백만명·년) 반해, 유럽은 적게는 30배(스페인 37m³/백만명·년), 많게는 1,000배이상(1015m³/백만명·년) 장작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작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는 듯, 포럼의 장작판매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09년 첫째 장작판매는 15만엔 정도에 그쳤지만, 2년째 150만엔, 3년째 380만엔으로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700만엔의 매출을 올렸다.





[사진 7] 아소산 중턱에 위치한 포럼의 장작 건조 시설

바이오매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협약회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펠릿생산자와 스토브판매자, 개인이 납부하는 협약회 회비를 납부하고, 지자체 및 NPO단체는 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인즉 펠릿 생산자 및 스토브판매자는 협약회 활동이 자신들의 사업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역시 장작 또는 펠릿할인권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낸다는 것이다. 즉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주체들이 회비를 내는 것이다.

협약회의 활동은 일반인들에게 장작의 좋은 점을 알리는 한편, 장작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한다. 예를 들어 장작만들기 워크숍 또는 장작아트콘테스트 등을 개최하여 일반인들에게 장작이 자주 노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무정거장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나무정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리포트 135호 참고).

[그림 3] ‘장작 아트콘테스트’와 ‘장작만들기 워크숍’의 포스터(출처 : <http://qmaki.com/>)

## IV. 맺음말

구마모토현의 사회적경제조직 탐방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긴 호흡’과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사회적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긴 호흡(단기간에 성과기대 금물)’을 해야 하며, 다양한 주체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사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던 말들이다. 그런데 이번 탐방을 통해 ‘긴 호흡’과 ‘네트워크 구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우스키다케요이 축제는 첫해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5년째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우치무라 교수는 말한다. 특히 수백년간 대립해왔던 커뮤니티가 축제를 통해 화해하기 시작한 것은 ‘긴 호흡’의 결과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긴 호흡’의 결과는 사회적경제조직 CHIKAKEN이 우스키다케요이(うすき竹箒)라는 축제를 경험한 2세대가 만들어낸 회사라는 점에 있다. 긴 호흡은 하나의 성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조직으로,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며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또한 ‘큐슈장작·목질펠릿활용협의회’는 네트워크구축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깨뜨렸다. 큐슈바이오매스포럼은 장작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스토브판매자와 손을 잡았다. 사실 스토브판매자는 시장경제영역이다. 스토브판매자 중에는 1억엔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 곳도 있다. 포럼이 700만엔 수입을 올리고 있을 때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죽 썰어서 개를 주는 꼴’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

그러나 포럼의 ‘나카보’씨는 단호하다. 유럽 등의 제품들은 몇 십년간 효율을 높여왔기 때문에(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리), 이용한다고, 그의 단 하나의 목표는 장작시장의 확대에 있다. 장작시장이 확대가 되면 포럼의 사업의 확대됨은 물론 안전한 사회, 재해에 강한 사회, 거대에너지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는 생각한다. 이와 같이 확실한 목적하에 진행되는 ‘네트워크 구축’은 논란거리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 참고문헌

구마모토현 지역만들기 꿈챌린지추진사업 사례집(地域づくり夢チャレンジ推進事業事例集), 구마모토현 새로운 공공지원사업 성과보고(新しい公共支援事業成果報告)  
 큐슈장작·목질펠릿활용협의회 장작스토브·펠릿스토브를 활용한 삼림자원의 유효활용(薪スト&ーブ・ペレットを活用した森林資源の有効活用)  
 위키피디아 자료 (<http://ja.wikipedia.org/wiki/熊本県>)  
 CHIKAKEN 홈페이지(<http://chikaken.com>)  
 큐슈장작·목질펠릿활용협의회 홈페이지(<http://qmaki.com/>)  
 오이타현 공식관광정보 사이트 ([www.visit-ota.jp](http://www.visit-ota.jp))